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음 3월 4일) 제20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로컬푸드 1번지' 명성 잇는다

방사성의약품 업체 정읍에 등지

로컬푸드 육성 3개년 계획

학교급식지원 등 3개 분야

2020년까지 3600억원 지원

전북도가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지원 등 3개 분야에 2020년까지 3,600억원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및 학교급식지원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로컬푸드가 지역 먹거리 체계로의 도약과 학교급식지원 등 공공조달로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북 로컬푸드 육성 및 학교급식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만큼, 향후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소비자 생산자 모두 안정적인 공급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획예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발표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로컬푸드 참여확산으로 소비자의 신뢰향상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통경로 마련, 연중 기획생산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을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신뢰 향상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모니터링, 도지사 인증매장 지정,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우리 잘 지내자”

18일 김제 죽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음매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학교음매는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동물교과교육 시범 사업의 프로그램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한다.

학교(교육지원청)와 생산자(센터)가 품목별 연중 적정 가격과 소요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직매장과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업인에게 소규모(200평) 단위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연중 생산기반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분야별 연계 촉진으로 직매장의 로컬푸드 범위를 도 단위 광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진출을 모색하고 학교급식 등을 로컬푸드와 연계 공급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권역간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을 추진, 최종 광역공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개장한 혁신도시 삼락로컬푸드 광역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13개 시군의 가공품과 신선농산물의 입점

비중을 올해 연말까지 20% 이상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20년까지 50%를 달성할 방침이며, 이미 포화 상태인 전북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타시도(수도권 등)까지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식품 가계 소비규모는 3조 3,165억원이며, '17년 전북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866억원으로 2.6%를 점유했던 만큼, 로컬푸드 성장 잠재성은 무궁무진 하다.”며,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중 학교급식과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삼영유니텍, 전북도·정읍시와 공장 신설 협약

비용 30억원·신규고용인원 100여명 창출키로

전북도와 정읍시는 1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2층)에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삼영유니텍과 전라북도 정읍시에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삼영유니텍은 정읍시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8,158㎡(2,468평) 부지에 30억 원 투자, 100여명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수입효과 등으로 지역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영유니텍은 1992년 자동차 설비를 공급하는 삼영종합기계라는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이래 원자력산업분야로 진출해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및 의약품 제조, 사이클로트론(Cyclotron), 핫셀(Hot Cell/ GMP 핫셀, 대형 핫셀) 등 동위원소분야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이다.

현재 삼영유니텍은 방사선 분야에 특화된 제품군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터키,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방사선 관련 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방



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대전공장에 이어 정읍시에 방사성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전문 공장을 설립하게 됐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와 정읍시는 (주)삼영유니텍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로 더욱 성장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 전라북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 2면 - 남북 중전선언 시사
- 3면 -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 청원
- 4면 - 전주시, 동아시아 관광역 캐치 총력

제5회 한옥마을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중)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세계 생중계 합의... 北, 우리측 제안에 수락

남북이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전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했다.

권 관장은 “오늘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약속하는 순간부터 회

담의 주요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생중계는 지난 5일 있었던 의전·경호·보도 분야 1차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을 북한이 이날 회담에서 수락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부패공직자 '뺑주기' 관행 뿌리뽑는다

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정책협의회' 고위공직자범취수사처 설치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18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출범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9차례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인식 하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척결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세우고 지난해 9월 첫 번째 협의회를 주재했다.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에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법무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제경찰,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반부패 관계기

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은 배석하게 된다.

협의회는 의장인 대통령이 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와 부처 관련 공동대응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관 사이에 상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정급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활성화 해 현장에서 조속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과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부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에 한정),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그 범위가 된다. /뉴시스

친환경 친환경기업
책임있는 친환경기업

제5회 한옥마을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중)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